

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 시공사와 '청렴 파트너십' 구축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기사입력 2025.08.21 10:54:54 최종수정 2025.08.21 10:54:54



-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와 지사 주요 사업 관련 시공사 관계자들이 청렴소통간담회를 갖고 있다.

© 농어촌공사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건설업계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청렴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지사에 따르면 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사 주요 사업 관련 시공사 7곳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상호 소통을 통해 계약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협력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공사 사칭 전화사기 피해 예방법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 참여업체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내부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거래관계 기업들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선 건의 및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

전승민 지사장은 "공사와 시공업체 간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계약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